

<2010년 8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>

1.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, 주님이 예전에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여 생각에서 잊고 관리하지 못하여 묻혀 있는 것을 찾아라. 그것이 새것을 발견한 것 같을 것이다. 사람도 그러하다.
2. 주님이 귀히 주신 것을 모르면 평생 모르고 못 쓰고 죽는다.
3. 그 지역 환경 속에 그 환경에 의한 작품이다.
4. 한 가지만 작품으로 찾지 말고 여러 가지를 찾아 보아라. 하나님은 나무, 바위, 샘, 지역, 형상석, 형상 나무 등 여러 가지로 작품을 창조하셨다. 사람도 각자 개성대로 귀한 걸작의 인물이다.